

광주·전남 '백종원식' 전통시장 활성화 나선다

광주 서구 4월 7일 '양동통매축제' 개최...전문 셰프 협업 양동시장 고유 상품 개발·판매...EDM 파티·길바닥 낙서존 고흥 생선구이 냄새로 손님 유인 '숯불생선구이 브랜드화'

요리연구가 백종원 대표가 추진한 전남 예산군의 예산상설시장 살리기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전국 곳곳의 전통시장이 인구 소멸, 소비자 소비 패턴 변화 등을 이유로 쇠락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산시장이 부활에 성공하면서. 예산시장은 장날에도 200여명 남짓의 손님이 찾아오는 데 그쳤으나, 지난 1월 백 대표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음식점 5곳을 연 뒤로 평일 하루 5000여명, 주말 1만 5000여명이 방문하는 명소로 급부상했다.

광주·전남의 지역자치단체도 이에 발맞춰 대형 축제를 열거나 시장 환경을 정비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광주 서구청과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은 21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다음달 7회 양동통매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는 지난 1월부터 기획돼 예산 3억 6000여만 원이 투입됐다. 오는 4월 7일부터 29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4시~밤 10시 양동시장 일대에서 총 8회 열릴 계획이다.

축제는 대형마트 일일 휴무 폐지, 대형쇼핑몰 신축 등으로 갈수록 전통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기획됐다.

축제 기간 동안 양동시장에서는 생매주 한 잔을 1000원에 판매하고, 전문 셰프를 영입해 양동시장 통닭과 향아리바비큐, 마리아묵 등 다양한 요리를 판매할 계획이다. 요리는 모두 시장에서 상인들이 판매하는 식재료를 이용해 만든다.

또 양동시장 상인들이 직접 만든 가방 등 고유 상품을 개발·판매하고 SNS·유튜브 등 공유 이벤트, EDM(전자ダンス) 파티 등을 진행한다. 낭만공작소, 플라워테라피, 오락실, 길바닥 낙서존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전남에서도 전통시장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흥군은 지난 7일 '전통시장 시골벽적 프로젝트' 용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12월까지 예산 2억원을 투입해 고흥군 남계리 고흥전통시장 내에 '숯불생선구이' 샘플 부스와 전문식당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앞서 충남 예산시장의 성공 사례에서 드러난 '생선구이 냄새를 퍼트려 손님을 끌어들이자'는 백종원식 마케팅 전략이 고흥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전통시장에서는 5년여 전부터 양태·서대·도다리·오징어 등 숯불구이가 인기를 끌고 있어 전국으로 택배 판매가 잇따르고 있다. 고흥군은 한발 더 나아가 숯불생선구이를 브랜드화해 전통시장의 명물로 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고흥군은 추가로 예산 3000만원을 투입해 고흥 전통시장 일대에 트리아트 2점을 그려넣어 '트리아트 거리'를 조성하는 등 줄길거리를 확보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또 대형버스 주차장 6면을 포함해 총 26면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도 내년 12월까지 진행한다.

완도군에서도 이달부터 한 달 동안 예산 1300만 원을 투입해 완도군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한다.

완도군은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오는 2026년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4개년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다함께 물 절약합시다

세계 물의 날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광주시 북구청과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행인들을 대상으로 물 절약 캠페인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전남도 365일 24시간 운영 성착취물 삭제·법률상담 등

전남도가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본격 운영, 텔레그램 'n번방' 등 다변화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는 상담전화로 365일 24시간 언제나 전문 상담사와 상담할 수 있다.

2021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여성가족부 주관 '2023년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여성긴급전화 1366전남센터'에서 운영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한 전과정보 지원 ▲피해 활용물 긴급 삭제 지원 및 연계 ▲심층 상담 수사기관, 법률·의료 연계 등 1대1 맞춤형 지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 자체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상담소 1개소를 추가 운영해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 전남지역 디지털 성범죄 신고 건수는 2020년 140건, 2021년 300건, 2022년 406건 등 총 846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피해자 중 10대와 20대가 63.7%를 차지하고 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영산강환경청, 독소 검출 의심 하류 녹조 '나몰라라'

'영산강물로 재배 쌀 발암물질' 주장에도 관련 조사 안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영산강 하류 지역의 유해조류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역 환경단체가 "영산강 물을 활용해 재배한 쌀에서 발암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주장한 지 열흘 가까이 지났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아직까지 관련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산강 하류 지역 3곳에서 재배한 백미를 분석한 결과, 1곳에서 1.57 μg/kg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며 "이는 60kg 성인 기준 미국, 프랑스 등에서 지정한 해의 가이드라인을 최대 4배 초과한 수치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를 일으키는 '남세균'이

생성하는 독소물질로 정자수 감소, 간 손상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하류에서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앞으로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에 나온 식약처 발표를 인용하며 쌀·무·배추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환경단체 등은 검사를 진행한 지역 자체가 녹조가 발생하는 강 하류 지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이 엇갈리는만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소극적인 대처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조류 독소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조류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하류 지역이 아닌 상수원(탐진호, 동북호, 주암

호)과 중류 지역(승촌보, 죽산보) 일대에서만 유해조류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의 하류에서는 강폭이 넓어지고 유속이 느려져 조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하류에서조차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녹조를 없애기 위해 영산강 하구둑을 개방하면 강물이 모두 바다로 빠져 영산강 물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환경부 등과 상의해 영산강 하류 지역 마이크로시스틴 검사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영산강물로 농사를 짓는 농민이 많은만큼, 녹조가 가득한 물을 많이 갖고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며 "22일 물의 날을 맞아 수량적 측면뿐 아니라 수질적 측면에서도 영산강을 관리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김오수 전 검찰총장, 전남대 로스쿨 석좌교수 내정

김오수(사진) 전 검찰총장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내정됐다.

21일 전남대에 따르면 대학 연구처에서 김 전 검찰총장을 석좌교수로 임명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김 전 총장은 이달 말에 임명장을 받은 뒤 로스쿨에서 헌법을 비롯한 법률 전반에 대한 연구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기는 2년으로 예정됐고, 특별강연과 정규강좌 등 여건에 따라 강기도 한다. 연구실도 제공된다.

김 전 총장은 최근 모교인 서울대에서도 석좌



교수 요정을 받았으나 고사하고 전남대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장은 영공 출신으로 대동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법무연수원장, 서울북부지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덕남정수장 보상신청 186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월에 발생한 덕남정수장 밸브 고장으로 인한 수도물 단수 사태 피해보상 신청 접수 결과 총 186건이 접수됐

다고 21일 밝혔다.

접수 유형별로는 ▲저수조 청소 32건 ▲필터 교체비 36건 ▲영업보상 73건 ▲생수 구입비 20건 ▲기타 25건 등이다. 피해보상 신청액은 1억 3700만원이다. /최원일 기자 cki@

Advertisement for '수목장' (Memorial Garden) featuring scenic photos of a garden and text: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반영구적 사용가능, 관리의 간소화, 낮은 관리비, 자연과의 동화,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 062-464-3466